

“휴식이 보약”... 돌아온 손흥민 ‘펄펄’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트니 윙스퍼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넣은 후 관중석을 향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골

로 잠재웠다. 손흥민은 지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에버턴과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뒤로는 한동안 득점하지 못했다.

올 시즌 예년만 못한 스타트를 보이자 손흥민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노쇠화에 따른 기량 저하)로 완전한 하락세에 접어들 게 아니냐는 얘기였다.

마침 23세의 어린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리그 3경기 연속골을 포함, 공식전 6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가 베테랑 손흥민과 대조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로 아이슬란드 국가대표로 프랑스 리그의 릴에서 뛰는 하곤 하랄손(21)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영국 매체 커트우프사이드는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손흥민의 토트넘 경력에 곧 끝날 수 있다. 구단은 이미 손흥민의 후임자를 낙점했으니, 영입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손흥민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이적설에 다시 불이 지펴진 것은 물론이고, 바르셀로나(스페인)가



웨스트햄과 22일 만의 복귀전 시즌 3호골... 3골 관여 맹활약

“한물 갔다” 세간의 평가 ‘홀홀’ 한국 월드컵 본선행 ‘청신호’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완료되는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FA)으로 그를 영입 하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경기에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작지 않았다. 손흥민 없이 나선 EPL 7라운드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토트넘은 2-0으로 앞서다 후반에 3골이나 얻어맞고 2-3으로 역전패 해 망신살이 났었다.

A매치 휴식기까지 폭 쉼 손흥민은 19일 웨스트햄과의 EPL 8라운드에 선발로 나섰다.

공식전 4경기, 22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한 손흥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토트넘의 후반전 3골에 모두 관여하며 4-1 승리에 앞장섰다.

토트넘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7분 손흥민의 패스를 기점으로 역전골을 뽑아

냈다. 3분 뒤에는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자책골로 이어져 토트넘이 3-1까지 앞서나갔다.

후반 15분에는 손흥민이 직접 득점포를 가동했다. 역습 상황에서 파페 사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전 ‘원맨쇼’를 펼친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후반 25분 교체됐다. 토트넘은 4-1로 승리를 마무리했다.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은 51.9%의 득표율로 팬 선정 EPL 공식 맨 오브 더 매치(MOTM)로 뽑혔다.

손흥민의 시즌 3호 골 소식은 흥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에게도 반가울 터다.

손흥민이 없는 동안 흥명보호는 배준호(스토크시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2000년대생 어린 공격수들을 앞세워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으로 열린 10월 A매치 2연전을 전승으로 장식했다.

손흥민이 11월 A매치까지 이달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흥 감독은 과포화한 2선 공격수 자리에서 누구를 출전시킬지를 두고 즐거운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이 더 수월해지는 건 물론이다. 스키데이리·연합뉴스

등번호 5번... 김도영 vs 구자욱 ‘자존심 대결’

KIA·삼성 31년 만의 KS 빅뱅

2024년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마지막 단계인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는 ‘No. 5’의 전쟁이다.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하고 KS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 최고 타자 김도영(21)과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끝자락’인 2015년 이후 9년 만에 KS 무대를 다시 밟은 구자욱(31)은 나란히 등번호 5번을 달고 뛰는 선수다.

김도영은 올해 KBO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였다. 정규시즌 홈런 38개와 도루 40개로 국내 선수 최초의 40홈런-40도루 클럽 가입에 도루 2개가 모자랐지만, 사이클링 히트와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 클럽 등 술한

기록을 남겼다. 정규시즌 141경기 타율 0.347, 189안타, 38홈런, 100타점, 143득점을 한 김도영은 21세 이하 최연소 최다 홈런,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까지 결했다. 김도영에게 이번 한국시리즈는 포스트시즌 데



뷔 무대다. 입단 첫해인 2022년 KIA는 정규시즌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섰지만, 그에게 타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관건은 첫 가을야구 무대가 주는 중압감이다. 김도영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일찌감치 방망이를 날카롭게 돌리기 시작하면, 12번째 KS 우승에 도전하는 KIA도 한결 순조롭게 시리즈를 풀어갈 수 있다.

삼성은 구자욱의 무릎 상태에 팀 명운이 걸렸다. 구자욱은 지난 15일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회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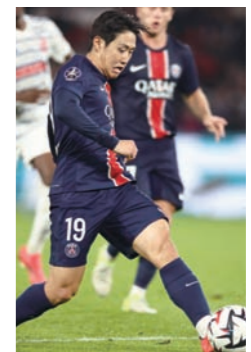
이튿날 일본으로 떠나 요코하마 이치마의료원에서 치료받아 복귀 의지를 보여준 구자욱은 19일 플레이오프 4차전에 앞서서 팀에 합류했다.

리그 4호 골... 이강인 2경기 연속 득점

한국 축구 대표팀의 10월 A매치 2연전을 마치고 소속팀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 복귀한 이강인(23)이 리그 4호 골을 폭발하며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탤

PSG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스트라스부르와의 2024-2025 프랑스 리그 1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PSG는 개막 8경기 무패(6승 2무·승점 20·골 득실 +17)를 기록, AS모나코(6승 2무·골 득실 +10)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A매치 2연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이강인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서 출발했고, 후반 13분 마르코 아센시오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돼 팀이 3-1로 앞선 후반 45분 득점에 성공했다 앞서 6라운드에 득점포를 가동했던 이강인은 리그 4호 골의 기쁨을 맛봤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